

#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용방안

— 초등학교도서관의 장서구성과 독서교육을 중심으로 —



정인선

구리시 동인초등학교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insun505@hanmail.net

환경(공간)은 예외 없이 존재의미를 규정한다. 학교도서관은 더욱 그러하다. 청소년기의 학교도서관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도서관의 존재에 대한 일반적 의미 이상인 이유도 거기에 있다. 즉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학교도서관은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의 존재보다 더 훌륭한 인류의 스승들, 즉 위인들의 모습들이 간직되어 있는 곳으로, 한마디로 말해 어린이에게 그곳은 위인의 전당이고 어린이 철학의 요람이기 때문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이 철학자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 1. 들어가며

요즘 어린이들에게 자유편독서를 시키거나, 어린이들이 도서바자회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락성의 책을 더 선호한다. 대개가 귀신이야기, 게임에 관한 책, 국적 불명의 유치한

만화책 등이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고 인성을 길러주며,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고력을 길러주는 철학관련 도서의 독서습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존재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요즘 어린이들은 양질의 책을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도서들과 접할 기회나 장소도 흔치 않다. 도서관마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세대들이다. 다시 말해 어린이들은 학교생활과 여러 가지 학원 공부, 특기를 키우기 위한 레슨 활동 등으로 독서시간을 많이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나아가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독서활동을 권장하더라도 사정은 여의치 않다.

그러나 어린이의 교육환경과 여건이 바람직하지 않을수록 양질의 도서에 대한 독서활동은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필요성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것은 철학독서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좋은 독서는 훌륭한 어린이가 되는 정도다. 특히 철학독서를 더 많이 읽도록 유도하고 가르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린이 철학도서는 철학적 사고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집필된 도서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유연한 생각과 더불어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철학적인 사고는 학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있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문제 해결능력을 높이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며, 또한 올바른 가치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판단력을 길러준다.

따라서 어린이 철학도서는 철학의 영역을 고루 경험할 수 있는 도서들이다. 철학은 생각의 올바른 근거를 토대로 이치에 맞는 논지를 펼 수 있도록 하는 논리학과 올바른 생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가치를 바르게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윤리학과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의문을 해결해보려는 앎의 문제인 인식론과 자신과 세상의 보이지 않는 이치를 따져보려는 존재론의 내용을 두루 다룬 책이다. 따라서 어린이 철학도서를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줄도 알고 자신의 생각의 즐거움을 찾아갈 줄도 알게 되며 미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해결해가는 방법도 익히게 될 것이다. 또한 철학하는 사람의 큰 기쁨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 2. 학교교육과 어린이 철학도서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은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는 역설적 격언이다. 하지만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어린이에게 올바르게 생각하기를 가르쳐야 할 당위성과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어른보다도 어린이에게 철학교육이 더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모든 어린이가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에게 철학교육은 꼭 필요하다.

## 1) 학교교육과 어린이 철학교육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은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으로, 학교교육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해 인간교육이다. 학교 교육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해결 기능, 창의적 탐구,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하는 사고력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길러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지고 읽혀지기를 바라는 도서가 바로 어린이 철학도서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철학도서를 읽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넓고 깊게 재구성하고 창조적이고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어린이 철학도서 읽기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철학적 사고의 훈련은 어른들에 비해 감정적으로 자유분방하고 상상력이 뛰어난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철학을 어렵고 추상적이며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에 비해 어린이들은 철학을 쉽고 흥미롭게 받아들인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사고의 내용을 철학적으로 풍부하게 만든다. 즉 어린이에게 철학은 본질적으로 사고를 제한하거나 경직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sup>1)</sup>. 이처럼 어린이들의 유연하고 상상력이 뛰어난 사고를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철학이다.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적은 어린이에게 철학적 사유 방식을 함양하여 직면하고 있는 모든 호기심과 문제들을 나름대로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흔히 어른들은 어린이에게는 철학함에 대한 능력이 없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근래에는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철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자가 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어린이철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2) 어린이 철학도서의 분류

어린이에게 철학도서는 어른들의 것과 달라야 한다. 어린이에게 철학도서는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신장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집필된 책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세상과 자신에 대하여 좀더 다양한 생각을 갖는 기회를 갖게 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철학도서는 어린이 나름대로의 이치에 맞는 사고, 즉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어야 한다.

기존의 철학적 범주를 기준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철학도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1) 서울교육대학 철학연구동문회 편역, 이초식 감수, 1986.『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서울: 서광사, p.53.  
 2) 어린이 도서에 대하여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등에서는 1차 분류에서 아동과 유아 등으로 초등학년을 구별하고, 2차 분류에서 어린이 상식으로 구분한다. 또한 3차 분류에서 주제 항목에 의하여 철학, 고사성어, 명언,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철학도서에 대한 분류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필자가 기존의 철학적 범주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시도하여 보았다.

① 철학일반: 알기 쉽게 철학개념을 풀이한 책(서양철학과 동양고전)

아이들은 철학이 무엇인지? 이성이 무엇인지? 판단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는 어린이 철학도서 역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② 윤리학: 철학동화, 현실생활의 문제 해결방법 찾기

철학동화는 간접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철학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읽을거리로서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올바른 판단을 추론할 수 있도록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의도된 깊이 있는 문제와 글을 수록한 동화책이다.

③ 논리학: 논리와 토론

논리학은 '사고의 형식과 법칙'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논리학을 잘 익혀두면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 또 어떤 판단의 옳고 그름을 가르거나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때도 논리적 사고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일들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해보거나,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생각의 유형들을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바로 논리연습을 위한 어린이 철학도서이다.

④ 존재론: 자아성찰, 자기계발, 형이상학적 사고

형이상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는 철학이다. 어린이들에겐 오히려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귀신은 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등

⑤ 인식론: 가치, 인생, 마음, 철학개념, 얽힌 문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 까지 알 수 있는가? 즉 철학의 중요한 대상인 인식론에 대한 학습에 도움을 주는 그런 어린이 철학도서 분야이다. 어린이들의 궁금증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다.

⑥ 어린이 철학지도용 교재: 학생용과 교사용

어린이 철학교재의 목적이 바로 의도적으로 철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에게 어린이 철학도서의 교육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한 책이다. 한 마디로 말해 학습용 어린이 철학도서이다.

[표. 1] 어린이 철학도서 분류에 따른 도서의 예

구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철학일반	서양 철학이야기(전4권)	박승찬	책세상	2006
	아빠가 들려주는 철학이야기(전4권)	이중훈	현암사	1994
	공자왈 맹자왈(전2권)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해냄	1995
윤리학	너희들하고 안 놀아	우르줄라뵐뵐	베를북	2008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	황정현	파랑새	1997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	라이너 이를링어	비룡소	2006
논리학	생각하는 어린이들(논리력편)	정혜원	글수레	2002
	해리의 발견(1,2)	황경식웁김	열림원	1996
	도깨비 선생님의 논리학교	양대승	채우리	2003
존재론	마음	김정홍	아이앤북	2008
	어린이를 위한 적극적인 나	잭 캔필드 외	꽃삼	2008
	내 마음이 자라는 생각사전	브누와 마르송	초록 개구리	2007
인식론	참 궁금한 세상	쩌우귀핑	아이필드	2001
	머릿속을 헤엄치는 생각 물고기	최은규	꿈소담이	2000
	난 알고 싶은게 너무 많아	오스카 브르니피에	녹색 지팡이	2005
철학지도 교재	아름빛깔 생각교실(학생용)	폴클레그혼, 스테파니보데이	닥터필로스	2007
	철학하는 내가 좋다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해냄	2004
	생각굴리기	황경식 웁김	철학과현실사	1991

### 3.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용방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서관에 구비된 어린이 철학도서의 목록을 보면 그 출판연도의 대부분이 2000년도 이후라는 걸 알 수 있다. 즉 대학 논술 시험의 영향을 받아서 출판업계에서 고무 받아 어린이 철학도서가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쩌면 좋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철학도서는 서울교대 철학동문회에서 생각하는 어린이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린이철학에 관한 외국 번역서도 많이 나오고, 국내 작가들의 창작서도 많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철학적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도서가 풍부해졌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는 도서출판보다 적절한 철학교육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철학도서를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해보고, 좋은 방법을 계속 고안하는 것이야말로 교육현장의 당면과제이고 현직 교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보려 한다.

- ① 학교도서관에서 어린이 철학도서를 많이 소장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나 사서에게 어린이 철학도서를 통한 독서교육의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그래서 학교 예산편성 시 어린이 철학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독서인증제를 통해 필독도서와 권장도서로 학년별 수준에 맞는 어린이 철학도서를 추가하여, 어린이들이 철학도서에 좋은 책이 많다는 것과,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철학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③ 단위학교 직원회의를 통해 어린이 철학도서 목록을 소개하여 교과 학습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린이들에게 적극 권장하여 읽고 독서퀴즈대회 같은 독서행사를 통해 어린이 철학도서를 접하게 한다. 좋은 철학도서가 학교에 많이 소장되어 있어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독서지도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독서전략을 안내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박영목은 『독서교육론』에서 “독서지도 교사는 자신의 주된 역할이 지식을 전달하는데 있지 않고 학생들의 유의미하고도 목적 지향적인 독서활동을 조정하고 안내하는데 있다”<sup>3)</sup>고 강조한다.

④ 학부모 총회 때 어린이 철학도서에 대한 안내를 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독서지도의 방향을 제시해주면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각 학교 마다 매년 열고 있는 도서 바자회에서 어린이 철학도서를 판매한다면 어린이들이 철학도서를 접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네 서점이나 문고에서는 어린이 철학도서를 언제나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도 어린이 철학도서를 대형문고에서 구입하려 했지만 늘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 주문해서 구입한 적이 있었다.

또한 철학수업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① 각 교과 시간에 어린이 철학도서와 관련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어린이 철학도서를 추가하여 교육과정 계획에 삽입한다. 이 때 학교도서관의 철학도서 활용을 반드시 권장한다.

② 철학동화 등 학교도서관의 철학도서를 활용하여 도덕수업을 진행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어린이철학이 도덕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아 도덕시간을 이용하여 사회규범이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준수해야 하는 지의 당위성과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덕시간에 학습해야 할 문제를 제시한 뒤 이를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철학도서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면 철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본교(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시간을 한 달에 한 시간씩 할애해서 도서관 활용시간으로 운영한다. 어린이들은 이 시간을 매우 좋아한다. 방학을 제외하면 10시간의 기회가 있다. 교사는 이 10시간

3) 박영목, 2008. 『독서교육론』, 서울: 박이정, p.156.

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동시를 접하는 시간, 과학에 관한 책을 접하는 시간 등을 갖는다. 특히 철학이 무엇일까 등 궁금한 문제를 10개 이상 만들어 그것을 해결해보는 시간은 어린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게 해준다. 이처럼 모든 학교에서 학교도서관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철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길러질 것이다.

④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재량활동 시간은 교사에게 가장 융통성이 많이 부여된 시간이다. 따라서 재량활동 시간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어린이 철학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학급 교육과정 작성 시 미리 이런 계획을 세워두면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4. 나오며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어린이 철학교육은 아직도 불모지나 다름없다. 어린이 철학도서의 출판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초등학교 도서관의 어린이 철학도서 보유현황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어린이 철학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교육과 교재와 학교도서관의 삼각관계 모두가 철학의 사각지대이고 비철학적 교육환경이다. 그러면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험적 제안으로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 철학교육에 대한 학교, 학부모, 교사, 학교도서관 모두의 공감대가 우선이다. 어린이 철학도서는 어린이의 철학적 사고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집필된 도서이다. 어린이 철학도서는 어린이로 하여금 문제의 해결능력을 높이고, 호기심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며, 또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어린이 철학도서를 많이 소장하고 독서인증제나 필독서 선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직원회의나 학부모회의를 통해 어린이 철학도서를 권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어린이 철학교육에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둘째, 양질의 어린이 철학도서가 필요하다. 어린이도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판경향을 보면, 어린이 출판도서는 매년 전체 출판도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동화 중심의 문학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어린이를 위한 독서안내가 주로 문학작품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그와 다르다. 논술열기에 힘입어 어린이 철학도서의 출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용 도서출판은 양보다 질이 우선해야 한다. 철학도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앞으로 더 많은 양의 어린이 철학도서의 출판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도서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셋째, 이해하기 쉬운 철학도서가 필요하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어린이 철학도서의 경우 어려운 개념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더 많은 책들이 나오면 좋겠다. 예컨대 철학만화책이 그러하다. 만화책은 아이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어린이들의 생각을 키워주는 이해하기 쉬운 철학도서들이었으면 더욱 좋겠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 철학도서는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에게 꼭 감수를 받아서 내용에 대한 오류가 없기를 기대한다. 또한 어린이 철학도서를 출판할 때 독서를 하는 대상이 되는 어린이를 저자나 출판사가 대상 학년을 지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학년용 또는 고학년용 또는 1·2학년용, 3·4학년용, 5·6학년용 등으로 표기하면 학부모나 교사 그리고 어린이들이 철학도서를 선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사용 철학지도서가 필요하다. 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철학을 지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철학교재가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 현재에도 번역출판된 외국의 철학교재 시리즈를 비롯해 국내의 철학도서가 있지만 교재용일뿐 교사용 철학지도서는 아직도 눈에 띄지 않는다.

끝으로, 창의적인 노력을 모아야 한다. 어린이의 생각은 어른보다 훨씬 기발하다. 창의가 샘솟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언제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기울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신선하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독서를 갈망한다. 예컨대 어른보다 어린이가 재미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철학도서에 더욱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교,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관심과 역할에 따라 어린이의 창의적인 철학교육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창의적인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 그리고 어린이 철학도서 지은이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